

9.8.3. 지역별 종사자 현황

캐릭터산업 전체 종사자 중 서울에 11,335명, 즉 전체 종사자의 48.4%가 집중되어있다. 경기도는 5,077명으로 21.7%의 비중을 차지하며, 부산이 1,168명으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와 인천은 각각 873명(3.7%), 754명(3.2%)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전체 종사자의 3.0%를 넘기지 않고 있다.

캐릭터산업의 매출액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종사자도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있다. 서울 및 경기도에 편중되어있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캐릭터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9.51 캐릭터산업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지역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상품 유통업	합계	구성비(%)
서울	6,167	5,168	11,335	48.4
부산	669	499	1,168	5.0
대구	472	401	873	3.7
인천	398	356	754	3.2
광주	230	258	488	2.1
대전	92	401	493	2.1
울산	61	179	240	1.0
경기도	2,538	2,539	5,077	21.7
강원도	116	141	257	1.1
충청북도	285	163	448	1.9
충청남도	92	159	251	1.1
전라북도	115	237	352	1.5
전라남도	75	162	237	1.0
경상북도	116	261	377	1.6
경상남도	116	463	579	2.5
제주도	359	118	477	2.1
합계	11,901	11,505	23,406	100.0

서울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10,326명에서 2008년에 9,73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11,335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7년의 종사자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6.4%증가하였고, 연평균은 4.8%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 종사자를 6개 광역시와 9개도로 나누어 보면 먼저 6개 광역시는 2007년에 4,298명에서 2008년에 3,810명으로 감소한 후 2009년에 4,01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연평균은 3.3% 감소한 수치이다. 9개도는 2007년에 7,043명에서 2008년에 7,327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7,81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7% , 연평균 5.4% 증가한 수치이다.

표 4.9.52 캐릭터산업 연도별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10,326	9,734	11,335	16.4	4.8
부산	1,627	1,112	1,168	5.0	▽15.3
대구	871	845	873	3.3	0.1
인천	599	709	754	6.3	12.2
광주	453	450	488	8.4	3.8
대전	479	468	493	5.3	1.5
울산	269	226	240	6.2	▽5.5
경기도	4,342	4,654	5,077	9.1	8.1
강원도	258	239	257	7.5	▽0.2
충청북도	436	437	448	2.5	1.4
충청남도	248	241	251	4.1	0.6
전라북도	349	349	352	0.9	0.4
전라남도	179	221	237	7.2	15.1
경상북도	377	372	377	1.3	0.0
경상남도	590	569	579	1.8	▽0.9
제주도	443	466	477	2.4	3.8
합계	21,846	21,092	23,406	11.0	3.5

